



맨 발 동 무 도 서 관

#부산 북구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누구나 맨발로 찾아와도 편한 곳

맨발동무도서관의 이름에는 ‘누구나 맨발로 찾아와도 편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이 딱딱하고 일방적인 곳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며 창의성을 꽃 피울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공간, 젓먹이부터 할머니까지 누구나 친구가 되며 더불어 어울리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책과 사람, 이야기를 통해 다가가는 곳

맨발동무도서관은 2005년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관한 이후 책과 사람, 이야기를 통해 이웃에게 말을 건네며 누구나 스스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맨발동무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맨발동무는 도서관 바닥 교체와 빗물받이 공사, 청소년 쉼터 공간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긴급지원119를 만나게 되었지요. 몇 해 전부터 이야기방, 재미난다방, 모심방, 살림방에 깔았던 카펫에서 낡은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도서관 남쪽 테이블에 빗물이 넘쳐 도서관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일이 계속 되었고요.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질수록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마음 놓고 웃고 떠들만한 공간, 학원가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을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공사를 시작하며, 휴관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공사 기간 내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때문에 힘들 일 없는 쾌적한 공간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세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책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만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소년들이 잠시 쉬기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워 보는 ‘숨을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일은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도서관이 왜 이렇게 넓어졌어요?”, “도서관이 깨끗해졌어!” 바로 공사 후 도서관을 들어선 이용자들의 반응입니다. 바닥 교체 공사만으로도 도서관이 더 환해졌고, 비가 내려도 이제는 덜 걱정입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청소를 해도 줄어들지 않던 바닥 먼지가 사라졌고, 비가 내려도 마음을 졸이지 않은 채 도서관을 들어서도 됩니다. 복도에 만들어진 쉼터 공간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잠시 쉬었다 가는 쉼터로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도서관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컵라면을 먹던 청소년들이 쉼터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많은 분들이 “진작 공사를 하지 그랬냐.” 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을도서관을 일구어가는 일은 결국 마을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마을도서관



일이니 마을사람들이 도와야지.” 라고 하시며 매일매일 돌아가며 자원 활동으로 공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가를 분리하고 이동하는 일부터 모심방과 사무실 짐들을 옮기고 재배치하는 일, 공사 후 도서관 대청소 등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큰 공사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 가며 해야 한다.” 라며 공사기간 내내 점심을 차려주는 일을 해주신 마을분의 마음이 모였던 공사였습니다. 도서관이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함께 성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임을 재확인하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라고 돌이켜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에는 도서관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공간유지비(임대료와 전기세)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나가려 합니다. 2017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긴급한 시설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청소년 쉼터 공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빗물받이 공사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유지비 마련을 위한 자구책들을 여러 방법으로 고민해오고 있고 실행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공공기관에 지자체의 공간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도서관이 좋아서’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날도 있죠. 하지만 ‘도서관이 좋아서’ 라는 말이 결국 위로가 되는 날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